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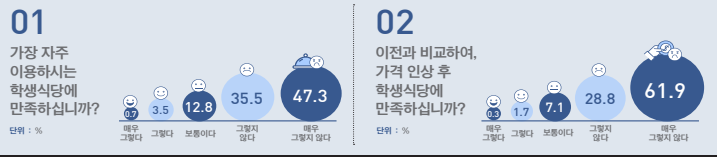
3» SPACE21 기체 상황 내년부터



5» 후보자들의 대학생 '패싱' 해답은 전입신고로 피한다



8» 국제캠 학식, 여전히 '불만족'



지난 5월 29일 우리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홍릉포럼이 열렸다. 이날 서울시와 고려대 등 홍릉지역 일대 대학들이 모여 바이오·의료·벤처·도시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학교는 3대 전략으로 ▲스마트에이징시티 ▲바이오헬스 R&D ▲문화예술 융복합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NewsMaker

조각가
박은선(미술교육학 83) 동문 인터뷰



천상 조각가, 균열로 숨을 불어넣다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박은선(미술교육학 83) 동문은 어려서부터 예술의 길을 꿈꿨다. 사람들은 어린 박 동문의 낙서를 칭찬했고, 교실 게시판의 디자인을 도맡았다. 당시 예술이라면 서양화라는 인식이 주류였지만 박 동문은 “모든 과목을 배우는 대학 1학년 때, 조각이라는 것을 배웠고 빠져들었다”며 조소를 전공으로 선택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조각은 그림과 다르게 작품의 모든 면을 만들어내고 관찰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며 조각을 예찬했다. 결심 끝에 박 동문은 조각에 전념하기 위해 유학의 길을 떠났다.

한국에서 미술학원을 하던 부인과 자녀를 두고 떠난 유학길이었다. “전시회와 부인의 학원 수입으로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IMF가 터져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박 동문은 급한 대로 전시회를 하던 갤러리에서 300만 원을 빌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로 떠났다. 피에트라산타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름난 대리석 산지로 미켈란젤로, 도나텔리, 헨리 무어 등 세계적 조각가들이 그곳을 작업 터로 삼았다.

조각에 매료돼

이탈리아로 떠난 박동문

혼자 떠난 이탈리아 유학. 가족의 빈 자리는 컸다. 결국 가족을 이탈리아로 데려와 지금까지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 동문의 부인은 “남편이 없던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자녀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 남편과의 동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10년 만에 국내에서 개

인전을 갖는다. 1.2톤의 대리석 조각을 천장에 매단 ‘무한 기둥’ 작품이 첫 선을 보인다. 바닥에 설치하는 조각 작품의 고정관념을 깬 ‘무한 기둥’에도 박 동문의 작품관이 녹아있다. 박 동문에게 조각과 작업이란 ‘인생의 전부’다. 그는 “저는 작품에 인간 박은선과 인생을 담아낸다”며 “작품의 트레이드마크인 균열과 틈도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작품의 틈으로 무형에 숨을 불어넣는’ 박 동문은 “그 틈으로 좋은 것은 빨아들이고 나쁜 것은 뿜어내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

꿈의 길을 연다

박 동문의 작품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엔 이탈리아 피사국제공항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고, 외교부로부터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알린 업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박 동문은 “제 작품의 외적인 형태는 서양의 모습을 품고 있지만 내적인 의미는 동양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 사상의 사례로 여백과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기둥을 통한 동양적 선의 예술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저는 괴팍한 예술가다”며 자신을 소개한 박 동문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본인과 대화하라고 말했다. “본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성공을 위한 방법은 본인과 진실 되게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박 동문은 본인과 대화할 줄을 중시한다면 성공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SPACE21 사업 2단계’ 시동 걸리나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SPACE21)’이 2단계에 접어든다. 현재 2단계 사업 총괄 수행을 위한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사업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5월 15일 미래정책원은 총무관리처 관리팀과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추진단 구성원을 수립했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새로운 시설 건설과 노후시설 개선, 일부 단과대학 외관 리모델링 공사 등을 골자로 한다. 신축 계획에는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미래과학관 건설과 구 한의과대학 부지 유통화가 포함됐다. 단과대학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서울캠퍼스 정경대, 문과대와 국제캠퍼스 외국어대 건물이 대상이다.

사업추진단은 총장직속 임시기구로 아직은 조직 구성을 위한 인사발령과 본격적인 업무착수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정책원 방철호 계장은 “관리팀을 비롯한 현행부서체계로도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전문화된 거버넌스가 있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단 신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단은 건설 디자인·설계 기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총괄기획그룹과, 구체적인 공사계획의 집행을 담당할 실행그룹이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사업 당시 기획기능은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에 있고 실무는 ‘SPACE21 건설사업단’이 담당한 반면, 2단계 사업추진단은 기획기능과 실무기능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방 계장은 “전문성과 통합성이 겸비된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CE21 사업의 기원은 개교 60주년이었던 2007년 3월 20일 발표된 ‘캠퍼스 마스터플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과 연구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당시 2020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눈 실행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그러나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사업 내용과 구성원 소통을 둘러싼 각종 잡음 속에 본격적인 착수가 미뤄졌다. 2010년,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SPACE21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출범식을 가졌으나 기존 계획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1년에는 사업규모 축소가 결정됐다. 2014년 말에서야 신축 건물의 건축승인을 받았고 2015년 중순에 이르러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최초의 마스

터플랜 발표로부터 8년 만이었다. SPACE21 1단계 사업은 2015년 착공부터 아름원, 한의대·간호/이과대 신축단과대학동 완공까지이다. 이를 담당할 건설사업단은 2월 28일 총무관리처로 통폐합됐다.

한편 1단계 사업이 종료됐지만 사 용승인신청, 민원처리, 하자보수, 조정, 추가공사 등 관련 업무들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단 해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방 계장은 “관리 제반 업무는 총무관리처로, 혹은 있을지 모르는 추가 공사 업무는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이 맡고 있다”며 “후속 업무들은 기존 조직에 효율적으로 안배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총무관리처 정진봉 처장은 “건물의 개·보수나 관리하는 원래 총무관리처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단 해산 후 총무관리처에 신설된 업무는 사용승인 관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간강사 “해고 통보 받았다”… 후마 “해결방안 마땅치 않다”

〈후마〉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중핵교과 기존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대책을 위해 객원교수 약 20여 명과 지난 2일 ‘중핵교과 교수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2일 중핵교과 고봉준 PD교수는 “2018-2학기 중핵교과에서 객원 이상 교수가 맡는 수업을 제외하면 시간강사에겐 1과목씩 배정될 것”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내년 2학기 시간강사에게 배정할 수 있는 강의가 없을 듯하다”는 메일을

보냈다. 시간강사들이 ‘실질적 해고통보’라고 해석한 지점이다.

고봉준 교수는 “강사들에게는 강의료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며 “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한된 강의 안에서 시간강사 몫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고 교수의 메일 일주일 후 중핵교과 박상용 교수는 메일을 통해 “기존 시간강사들은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으며, 학교의 일방적 요청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교수자 간담회를 제안했다.

시간강사들은 간담회에서 “이번 메일은 실질적으로 해고 통보나 다름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학기에 신규 강사를 9명이나 채용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2011년 후마 설립부터 함께한 시간강사 문제가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음에도 이런 통보를 한 것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후마 정복철 부학장은 “비상사태가 확실하다”며 “이를 해결해야 후마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핵교과 시간강사들은 4일 후마

이영준 학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학장은 ‘기존 시간강사의 객원교수 전환’에 대해 “국제캠퍼스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학장 선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후마 초기부터 함께한 시간강사들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핵교과 PD 교수에게 그러한 방향을 가지라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교무처는 “후마만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다”며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알림

이번 호가 2018학년도 1학기 중간호입니다

총장선출제 관련 기사는

홈페이지 ‘이슈스트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http://media.khu.ac.kr/khunews

f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전문가 칼럼

지방선거와 보강

이삼출(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